

재무적·사회적 성과를 결정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

황수영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용덕 (기술보증기금 연구위원)**

구인혁 (우송대학교 조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발적으로 경영공시를 수행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총고용 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사용하였다. 사회적기업의 특성 요인으로는 대표자 특성(성별, 나이,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기업규모, 업력, 창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인증 경과기간 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분석에서 기업규모, 조직형태, 정부지원금, 자기자본비율은 재무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CEO 나이, 기업업력, 창업금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분석에서는 CEO 성별, CEO 연령, 기업규모 정부지원금은 총근로자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인증유형, 업종더미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CEO 성별과 인증유형은 취약계층취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정부지원금, 기업규모 등은 취약계층취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핵심주제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무적 성과, 사회적 성과

1. 서론

최근 노동·환경·인권 문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재정투입, 자산·기부 등의 방식을 넘어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회적기업이 형성하는 사회적 경제 또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기업이 이상적인 모델로 주목받아왔다(김희철, 2015).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2017.10)」,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2)」 등을 발표하면서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수(인증기준)는 2007년 55개에서 2017년 2,161개로 증가하였으며¹⁾, 고용된 근로자 수도 2007년

2,539명에서 2017년 41,417명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문화 및 예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질적, 양적 성장에 힘입어 지원과 혜택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 또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노정된 문제들은 재무적 성과 악화 등 상업적 경쟁력 약화에 따른 생존능력 부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창출 여부, 사회적기업 및 기업이 육성 프로세스의 부족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1,877개(2017년 기준 재무정보 및 사회적 성과정보 보유 기업) 기업 중 재무 및 사회적 성과 등의 정보가 있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 CEO특성, 지역·업종 특성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수의 국내 연구 중에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측면을 동시에 분석

* 주저자, IBK경제연구소, rex2004@hanmail.net

** 교신저자, 기술보증기금, ky4462@naver.com

*** 공동저자, 우송대학교, ihkoo@wsu.ac.kr

· 투고일: 2018-11-05 · 수정일: 2019-01-15 · 게재확정일: 2019-02-15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신 인증현황,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company.do>

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기업특성 뿐만 아니라, CEO 특성, 업종과 지역 등 다양한 환경 및 제반 효과를 동시에 규명함으로써 기존 사회적기업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자립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토대를 제공하였다는데 실무적으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하 연구의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 결론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역사적 관점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즉, 사회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윤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영리목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중간 형태를 가지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Dart, 2004; Hines, 2005). 노동자 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예이다.2) 현대적인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유럽에서 1970년대 등장하여 199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써 기존의 복지제도,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성장해왔다(유금순, 2013).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하락과 함께 대두된 만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김금환·강영숙, 2014). 특히, 사회적기업은 유럽에 널리 퍼졌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업 범주 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Duccie et al., 2002; Mancino & Thomas, 2005).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우선적 목표를 가지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여의 사명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의 특성과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기업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비영리단체와는 다르다.

영국 상무부(2002)에 따르면3), 사회적기업이란 주주와 소유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기보다는 ‘분명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서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민간이 지닌 기업 가적 지향성과 공공 서비스가 지닌 정신·가치가 더해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의 정의 아래에서 사회적 목적과 이윤추구 행위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재무관리, 즉 재무 안정성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진행했으나, 저임금, 단기 일자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규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의미한다.

2.2 사회적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수(인증기준)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그 해에 55개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 2017년 까지 인증기업 수가 2,161개로 연평균 4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총고용도 2007년 2,539명에서 2017년 41,417명으로 연평균 32.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에 높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 측면에서 2007년 1,403명에서 2017년 25,171명으로 연평균 3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11.8%, 청소 10.2%, 환경 6.0%, 교육 8.1%, 사회복지 5.7%, 간병가사 5.1%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상기 통계치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질적·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유형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구분된다. 2017년 기준 사회적기업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형 68.6%, 기타형 11.0%, 혼합형 9.4%, 사회서비스 제공

2)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직접 출자하고 경영도 책임지는, ‘출자-노동-경영’이 일체화된 자립적 경영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3)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available at www.dti.gov.uk/socialenterprise.

형 6.2%, 지역사회 공헌형 4.8%로 나타나, 대부분이 일자리 제공형에 편중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1년 887

억원에서 2016년 1,407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사회적기업 수(인증기준) 및 고용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적기업수(개)	55	221	298	514	669	811	1,080	1,345	1,640	1,905	2,161
총고용(명)	2,539	8,329	11,150	13,433	15,990	18,297	23,919	28,201	34,220	39,195	41,417
취약계층(명)	1,403	4,832	6,467	8,227	9,488	11,091	14,179	17,009	21,096	23,858	25,171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표 2> 사회적기업 유형

인증유형	인증조건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18년말까지는 30%)
사회서비스 제공형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18년말까지는 20%)
혼합형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18년말까지는 20%)
지역사회 공헌형	다음 중 하나를 충족, 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② 지역의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
기타형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분야 등의 서비스를 말함

2.3 선행연구

사회적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 가지 주요한 연구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와 영역(Austin, 2000; Mair & Marti, 2006),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운영의 상업적 측면과 사회적 가치 측면을 통합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Cooney, 2011; Foster & Bradach, 2005; Weisbrod, 2004)이며,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적·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Dees, 1998; Voss & Voss, 2000)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적·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로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관련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 구성원의 특성, 기업의 특성, 기업의 조직문화, 정부보조금, 기업가정신 등 다양한 특성들이 논의되고 있다. 장영란 외(2012)는 사회적기업의 구성원 특성과 기업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역량이나 종업원의 역량이 높을수록, 회계시스템의 운영이 좋을수록, 사회적기업 인증 성적이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종업원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가 교육과정을 이수할수록, 회계시스템의 운영이 좋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일수록, 사회적기업 인증 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적 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이재기(2012)는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조직형태, 정부 지원금, 지역, 업종, 규모, 고용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유형과 정규직 비율만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효석·김예경(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인증유형,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의 형태가 주식회사인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보다 사회적 성과가 더 높으며, 재무적 성과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기관보다 영업이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연·김선구(2016)은 사회적기업 특성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형태, 기업규모, 자본, 유급근로자수, 인증기간 등은 재무적 성과(매출액영업이

익률)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공시횟수는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 인증기간 등은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고용비용)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유급근로자수와 공시횟수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보조금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재홍·이재기, 2012; 김정인, 2014; 김희철, 2015; 홍효석·김예경, 2016; 김숙연·김선구, 2016; 윤경옥 외, 2018). 홍효석·김예경(2016)은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효과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무적 성과인 영업이익에서는 정부인건비 지원금과 기타정부지원금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성과인 당기순이익에서는 정부지원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연·김선구(2016) 연구에서는 정부지원금은 재무적 성과(매출액영업이익률)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총고용비용)와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경옥 외 (2018)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 자체고용비용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의 마인드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강문실·양성국, 2015). 같은 측면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명희, 2008; 이용탁, 2011; 선남이·박능후, 2011; 김용태·박재환, 2013; 강문실·양성국, 2015). 김용태·박재환(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세부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문실·양성국(2015)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세부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가치지향성 등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여성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연구에서 김학실(2016)은 사회적기업의 창업동기가 여성과 남성과는 다르고, 창업동기의 차이로 인해 성과를 인식하는 것도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사회적기업가들이 창업한 업종은 이전의 경험이나 직업과 연계되고 있었으며, 「사회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여성창업이 활성화 된 계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들은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과 비교할 때, 보다 여성 친화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향후 여성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 기업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김금환·강영숙(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3 연구가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목적을 추구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이윤창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벤처 및 창업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특히, 기업의 재무구조와 개별적 특성이 수익성을 대용변수로 하는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회적 이익과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라 재무적·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장영란 외, 2012; 김재홍·이재기, 2012; 홍효석·김예경, 2016; 김숙연·김선구, 2016). 기업규모, 업력, 인증유형, 조직형태, 자금조달 유형 등의 기업특성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환언하면,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속성과 그들의 재무적, 사회적 성과를 탐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사회적기업의 기업특성은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사회적기업의 기업특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CEO는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그 전략을 추진하도록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조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정재진, 2014). 기업의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CEO 역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강문실·양성국(2015)은 사회적기업 CEO의 기업가정신이 뛰어난수록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 높다고 주장하였다. 김기철·서병덕(2017)은 사회적기업 CEO의 경영역량이 기업의 평판을 매개로 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처럼 CEO의 특성은 사회적기업의 재무적·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1. 사회적기업의 CEO 특성은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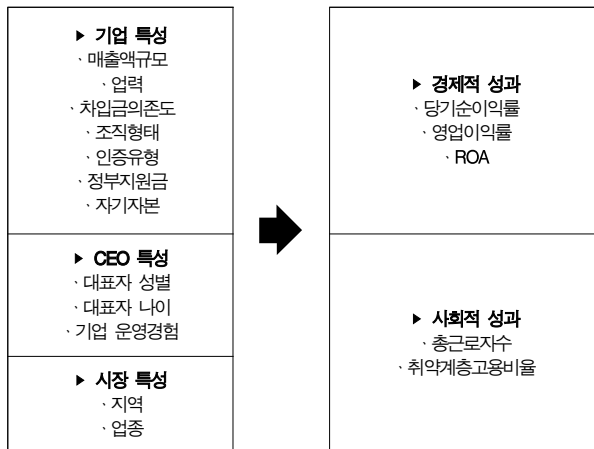
가설 2-2. 사회적기업의 CEO 특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 및 CEO 특성 이외에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김재홍·이재기(2012)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사회적 성과에 유의적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업종으로는 ‘간병·가사업종’의 경우 사회적 성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이처럼 지역과 업종도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대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1. 사회적기업의 지역·업종 특성은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사회적기업의 지역·업종 특성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III. 연구방법

3.1 변수정의

3.1.1 종속변수

3.1.1.1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속성과 그들의 재무적, 사회적 성과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추구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취약계층고용률, 취약계층근로자수, 취약계층제공비율, 정규직비율 등은 사회적 성과로 분석되었다(선남익·박능후, 2011; 김재홍·이재기, 2012; 장영란 외, 2012; 이수창·정우열, 2014; 김정인, 2014; 김창범·이찬영, 2015; 김희철, 2015; 김숙연·김선구, 2016).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고, 재무적 성과로는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총근로자수와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사회적 성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3.1.2 독립변수

사회적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3가지 특성을 고려하였다. 대표자 특성, 기업 특성, 지역·업종 특성을 독립변수들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CEO 특성, 기업 특성, 지역·업종 특성으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2.1 CEO 특성 변수들

이전 연구들을 기반으로 먼저 대표적인 CEO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 (Gender)과 나이 (CEO age)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김학실, 2016; 강문실·양성국, 2015).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Experience)도 중요한 CEO 특성으로 포함하였다.

3.1.2.2 기업특성 변수들

기업규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규모의 대리변수인 매출액 (Sale)을 기업특성 변수로 고려하였다. 또한 기업규모와 마찬가지로 경영상황의 영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업력 (Firm age)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업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경영이 안정적인 기업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차입금의존도 (Loan), 자기자본비율 (CR), 정부·외부지원금 (Gov)을 포함하였다. 정부 및 외부지원금은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합한 정부 및 외부지원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 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기보다는 정부보조금이나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및 외부지원금은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혹은 취약계층 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및 수입손실을 보상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재무적·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과도한 차입금조달은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오히려 사회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여 우수한 기업성과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초기 자본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사회적기업들은 높은 이익이나, 취약계층 고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인증유형 (Type), 조직형태 (Group)도 기업의 특성변수로 포함하였다. 인증유형 (Type)은 일자리 제공형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증유형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창출이 목적인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실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조직 형태보다 기업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직형태 (Group)는 상법상 회사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영리조직일 경우 효율적인 경영방식과 책임경영 기법 등이 도입되어 기업의 성과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3.1.2.3 지역·업종 변수들

지역과 업종을 나타내는 변수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지역 (Local)은 사회적기업이 수도권이 소재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업종 (Sector)의 더미변수는 제조업을 영위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지정하였다. 종속 및 설명변수의 구체적 정의는 <표 3>에 요약하였다.

<표 3> 종속 및 설명변수 정의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NIR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OIR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ROA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EMP	ln(총근로자수)
	SVR	취약계층고용비율=취약계층고용/총근로자수×100
CEO 특성	Gender	대표자성별 : 남자=1, 여자=0
	CEO age	대표자 나이
	Exper	사회적기업 운영경험 : 인증전 사회적기업 운영기간(년)
기업특성	Sale	ln(매출액)
	Firm age	기업 업력
	Loan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100
	Group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1, 그 외 = 0
	Type	인증유형 : 일자리 제공 = 1, 그 외 = 0
	Gov	정부지원금 = 인건비 + 전문인력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등
	CR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시장 특성	Local	지역 : 수도권 = 1, 그 외 = 0
	Sector	업종 : 제조업 = 1, 그 외 = 0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될 모형은 최소자승추정법 (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한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

과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P_i = \beta_0 + \beta_1 CEO_i + \beta_2 Firm_i + \beta_3 Market_i + e_i \quad (1)$$

$$SP_i = \beta_0 + \beta_1 CEO_i + \beta_2 Firm_i + \beta_3 Market_i + e_i \quad (2)$$

식(1)에서 종속변수인 재무적 성과(FP_i)는 당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이며, 식(2)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적 성과(SP_i)는 총근로자수와 취약계층고용비율이다. 독립변수는 CEO 특성 (CEO_i), 기업 특성 ($Firm_i$), 시장 특성 ($Market_i$)으로 구분되며, CEO 특성으로는 대표자 성별, 대표자 나이,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기업 특성으로는 매출액, 기업 업력, 차입금의존도, 조직형태, 인증유형, 정부지원금, 자기자본비율, 시장 특성으로는 지역, 업종을 포함한다. i 는 기업을 나타내며, e_i 는 오차항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시된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자율경영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구분하였고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매칭하여 기업별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 재무성과 데이터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CRETOP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총 1,621개 기업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재무데이터와 매칭이 가능한 기업수는 50개이고 따라서, 실제 횡단면분석에 사용된 기업수는 50개이다.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내용으로는 인증유형, 사회적서비스제공 유형, 유급근로자(취약계층 근로자수,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주인), 정부지원금(인건비, 전문인력,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재정현황과 매출 및 손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데이터는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을 포함한다.

4.2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당기순이익률 (NIR) 평균은 1.03%, 영업이익률 (OIR) 평균은 -3.68%, 총자산이익률 (ROA) 평균은 3.3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용수는 평균 26.9명, 취약계층고용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기업업력 (Firm age)은 평균 6.56년, 매출액 평균은 28.9억원

으로 나타났다.

CEO 성별 (Gender)은 남성이 67%, 여성이 33%로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EO의 연령 평균은 50.6세, 인증받기 전 사회적기업 운영경험은 평균 3.2년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형 (Type)는 일자리제공형이 전체 표본의 70%를 차지하며, 조직형태 (Group)는 상법상의 회사가 전체 표본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차입금의존도 (Loan)는 평균 55.7%, 자기자본 비율은 21.4%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34%, 업종은 제조업이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기술통계

변수명	표본 수	평균	중앙 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NIR(%)	477	1.03	2.03	11.49	-88.72	34.38
OIR(%)	477	-3.68	1.50	19.77	-134.53	31.42
ROA(%)	477	3.31	3.82	25.67	-183.30	177.36
Labor1(명)	477	26.91	10.00	56.49	1.00	660.00
Labor2(%)	367	58.48	60.00	21.32	0.00	100.00
설명변수						
Gender(더미)	596	0.67	1.00	0.46	0.00	1.00
CEOage(세)	595	50.56	50.00	9.10	26.00	79.00
Exper(년)	1,621	3.19	3.00	2.59	0.00	9.00
Sale(억원)	477	28.94	7.98	206.82	0.44	4468.24
Firmage(년)	662	6.56	5.00	4.89	0.00	61.00
Loan(%)	153	55.72	51.1	54.22	0.10	457.8
Group(더미)	367	0.65	1.00	0.47	0.00	1.00
Type(더미)	367	0.70	1.00	0.45	0.00	1.00
Gov(억원)	367	1.28	0.79	1.91	0.00	17.96
CR(%)	160	21.43	28.05	60.56	-479.30	91.40
Local(더미)	367	0.34	0.00	0.47	0.00	1.00
Sector(더미)	805	0.28	0.00	0.45	0.00	1.0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5>는 표본기업의 업력분포를 나타낸다. 업력이 3~6년이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2년 초과 기업도 9.5%를 차지하였지만, 실제 9년 미만 업체가 전체의 83.9%를 차지하고 있어 업력이 짧은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5> 사회적기업 업력 분포('16, N=662)

3년 미만	3-6년	6-9년	9-12년	12년 초과
21.1%	44.1%	18.7%	6.5%	9.5%

<표 6>은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를 나타낸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구간이 3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9.6%가 있으나, 50억 원 이하가 90.4%로 전반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16, N=477)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36.3%	20.8%	26.4%	6.9%	9.6%

<표 7>은 사회적기업 인증 경과기간별 당기순이익률 평균을 나타낸다. 여기서 당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1년 경과한 기업들의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3.5%, 3년 경과한 기업은 -2.6%, 5년 경과 -2.1%, 7년 경과 -0.7%, 9년 경과 -0.9%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증 후 플러스(+)였던 수익성이 3년 경과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 후 약 3년간 지원(예비사회적 기업 2년 포함 총 5년 간 지원)되는데, 이후에는 수익성이 대체로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사회적기업 인증 경과기간별 당기순이익률 평균('16)

1년 경과	3년 경과	5년 경과	7년 경과	9년 경과
3.5%	-2.6%	-2.1%	-0.7%	-0.9%

<표 8>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인증 전 사회적기업 차입금의존도 (Loan)와 자기자본비율 (CR)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변수들은 하나씩 따로 분석하였다.

4.3 실증분석 결과

4.3.1. 사회적기업 특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표 9> 모형(1)~(3)은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CEO 나이는 모형(3)에서 ROA와 10% 유의수준 하에서 음(-)의 관계를 보인다. 대표자의 나이가 적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더 높다는 의미이다.

매출규모는 모형(2)에서 약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업력은 모형(3)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의존도 (Loan)는 재무적 성과와 강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과도한 차입금조달은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차입금보다는 자기자본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 건전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 (CR)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정부 및 외부지원금 (Gov)과 재무적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숙연·김선구 (2016)와 홍효석·김예경(2016)의 연구에서 정부지원금이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과 반대의 결과이다.

<표 8>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Gender	CEO age	Exper	Sale	Firm age	Loan	Group	Type	Gov	CR	Local	Sector
Gender	1.000											
CEO age	0.022 (0.593)	1.000										
Exper	-0.006 (0.880)	0.152*** (0.000)	1.000									
Sale	0.042 (0.503)	0.059 (0.345)	0.048 (0.297)	1.000								
Firm age	0.046 (0.335)	0.226*** (0.000)	0.433*** (0.000)	0.136*** (0.003)	1.000							
Loan	-0.004 (0.958)	-0.068 (0.404)	0.077 (0.345)	-0.212*** (0.009)	0.026 (0.759)	1.000						
Group	0.012 (0.885)	-0.146* (0.080)	-0.054 (0.302)	0.032 (0.546)	-0.079 (0.132)	0.046 (0.749)	1.000					
Type	-0.007 (0.935)	0.075 (0.368)	-0.145*** (0.005)	-0.079 (0.129)	-0.058 (0.265)	-0.065 (0.652)	0.196*** (0.000)	1.000				
Gov	-0.074 (0.374)	0.091 (0.278)	0.180*** (0.000)	0.238*** (0.000)	0.187*** (0.000)	-0.280** (0.049)	-0.217*** (0.000)	-0.027 (0.604)	1.000			
CR	-0.022 (0.781)	0.089 (0.264)	-0.112 (0.158)	0.151* (0.057)	0.001 (0.987)	-0.940*** (0.000)	0.085 (0.559)	0.114 (0.431)	0.278* (0.051)	1.000		
Local	0.091 (0.278)	0.264*** (0.001)	0.148*** (0.005)	0.097* (0.063)	0.133** (0.011)	-0.176 (0.222)	0.040 (0.450)	-0.054 (0.299)	0.054 (0.299)	0.123 (0.394)	1.000	
Sector	-0.011 (0.798)	0.078* (0.060)	-0.045 (0.198)	-0.005 (0.906)	0.026 (0.501)	-0.015 (0.855)	-0.023 (0.658)	0.289*** (0.000)	0.068 (0.192)	0.063 (0.431)	-0.045 (0.387)	1.000

()안은 P-value임. * p<.10, ** p<.05 *** p<.01

<표 9> 재무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실증결과

Variables	재무적 성과					사회적 성과				
	(1)NIR	(2)OIR	(3)ROA	(4)EMP	(5)SVR	(1)NIR	(2)OIR	(3)ROA	(4)EMP	(5)SVR
Constant	8.826 (11.620)	-0.820 (8.821)	6.424 (10.773)	-4.975 (8.431)	39.771* (25.313)	9.464 (21.266)	0.419 (0.940)	0.323 (0.818)	23.419 (21.537)	28.264* (18.848)
Gender	-1.677 (3.024)	-3.269 (2.649)	0.701 (2.803)	-0.781 (2.531)	9.007 (6.587)	6.002 (6.385)	0.437* (0.244)	0.463* (0.245)	14.469*** (5.605)	14.935*** (5.659)
CEO age	-0.018 (0.180)	-0.054 (0.156)	0.004 (0.167)	-0.021 (0.149)	-0.559* (0.393)	-0.587* (0.377)	0.022* (0.014)	0.024* (0.014)	0.338 (0.334)	0.342 (0.334)
Exper	-0.493 (0.795)	-0.602 (0.689)	0.095 (0.737)	-0.019 (0.658)	1.869 (1.733)	1.595 (1.661)	-0.003 (0.064)	-0.003 (0.063)	-0.566 (1.474)	-0.523 (1.472)
ln(Sale)	1.039 (1.463)	0.180 (1.285)	2.262* (1.356)	1.598 (1.228)	0.744 (3.187)	-0.197 (3.099)	0.501*** (0.118)	0.529*** (0.119)	-3.415 (2.712)	-3.277 (2.747)
Firm age	-0.058 (0.459)	-0.112 (0.398)	-0.438 (0.426)	-0.496 (0.380)	-1.820* (1.001)	-1.964** (0.959)	0.004 (0.037)	0.004 (0.036)	0.146 (0.852)	0.168 (0.850)
Loan	-0.184*** (0.070)	-	-0.202*** (0.065)	-	-0.504*** (0.154)	-	-0.000 (0.005)	-	0.080 (0.131)	-
Group	4.967 (3.675)	3.145 (3.210)	3.127 (3.407)	1396 (3.068)	1.901 (8.005)	-1.699 (7.738)	0.323 (0.297)	0.349 (0.297)	-5.892 (6.811)	-5.331 (6.858)
Type	0.600 (3.753)	1.120 (3.181)	0.089 (3.480)	0.930 (3.040)	12.312* (8.177)	15.077** (7.669)	-0.541* (0.303)	-0.512* (0.295)	21.152*** (6.957)	20.701*** (6.797)
Gov	0.144 (0.492)	0.055 (0.426)	-0.605 (0.456)	-0.663 (0.407)	3.136*** (1.072)	3.097*** (1.027)	0.100*** (0.039)	0.104*** (0.039)	-0.396 (0.912)	-0.392 (0.910)
CR	-	0.250*** (0.053)	-	0.239*** (0.051)	-	0.501*** (0.129)	-	-0.003 (0.005)	-	-0.078 (0.115)
Local	-1.720 (2.679)	-1.048 (2.324)	-0.424 (2.483)	0.228 (2.221)	2.787 (5.835)	4.187 (5.604)	0.013 (0.216)	0.005 (0.215)	-0.510 (4.965)	-0.729 (4.966)
Sector	3.377 (3.338)	1.664 (2.541)	4.104 (3.095)	1.807 (2.429)	3.947 (7.272)	-2.803 (6.126)	-0.648** (0.270)	-0.693*** (0.235)	2.246 (6.187)	3.335 (5.430)
No. of Obs.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R ²	0.3222	0.4911	0.3783	0.5040	0.5666	0.6015	0.6649	0.6724	0.4655	0.4667

주1: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3>을 참고

주2: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3: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이는 정부지원금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크고, 정부지원금이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무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므로 인증유형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 성과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유형 (Type)은 모형(3)에서 10% 유의수준하에서 ROA와 양(+)의 관계를 보였 다. 인증유형 (Type)은 일자리제공형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적용하였다. 즉, 인증유형이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 (Group)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조직형태 (Group) 변수는 상법상의 회사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은 효율성을 증시하고 이익추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영리기업에 비해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이익추구 성향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CEO의 기업가정신, 직원의 전문성, 업무의 몰입도 등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CEO 성별 (Gender), 인증전 사회적기업 운영경험 (Exper), 지역 (Local)과 업종 (Sector)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사회적기업 특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

<표 9> 모형(4), (5)는 사회적 성과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CEO 성별은 모형(4), 모형(5)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CEO가 남성인 기업은 여성 기업에 비해 총고용과 취약계층고용비용 모두 높다는 의미이다.

CEO 나이는 총고용과 약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CEO의 나이가 많은 기업일수록 총고용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총고용은 증가하지만, 취약계층고용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반근로자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희철(2015), 김숙연·김선구(201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의 규모와 풍족한 재정능력 그 자체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금도 매출규모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정부지원금이 증가할수록 총고용은 증가하지만, 취약계층의 고용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김숙연·김선구(2016)와 홍효석·김예경(2016) 연구에서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고용비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효과로 총고용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고용비용도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숙연·김선구(2016)의 주장처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자립성이 약화되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용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영복 외(2018)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 창업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제도를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

하기 때문에 인증유형에 따라 사회적가치도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유형 (Type)은 총고용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취약계층고용비용과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인증유형 (Type) 변수는 인증유형이 일자리제공형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였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표본 중 약 70%가 일자리제공형임을 감안해 볼 때,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고용을 중심으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비취약계층 고용, 나아가 전체 고용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 (Sector)은 총고용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총고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기업은 비제조업분야에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력, 인증 전 사회적기업 운영경험, 차입금의존도, 조직형태, 자기자본비율, 지역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적 목적과 이익 및 사회서비스를 사회에 환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 역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를 실시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성과는 총근로자수, 취약계층고용비용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특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분석에서 기업규모, 조직형태, 정부지원금, 자기자본비율은 재무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 나이, 기업업력, 차입금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 CEO 성별, 인증 전 사회적기업 운영경험, 지역, 업종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 특성과 사회적 성과와의 분석에서는 CEO 성별, CEO 연령, 기업규모 정부지원금은 총근로자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인증유형, 업종더미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CEO 성별과 인증유형은 취약계층취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 기업규모 등은 취약계층취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부지원금이 클수록 일반 근로자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재정능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력, 인증 전 사회적기업 운영 경험, 차입금의존도, 조직 형태, 자기자본비율, 지역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들은 인증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익 창출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낮은 수익성을 벌충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이 많아도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과도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스스로가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기업특성 뿐만 아니라, CEO 특성, 업종과 지역 등 거시적 변수들의 효과를 동시에 규명하고자 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CEO의 특성(기질,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횡단면 분석을 넘어 패널데이터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강문실·양성국(201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연구*, 27(3), 17-35.
 김금환·강영숙(2014).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 분석, *벤처창업연구*, 9(1), 141-151.
 김기철·서병덕(2017). 사회적기업 특성과 CEO의 경영역량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평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4(2), 47-80.
 김명희(2008). 영국의 사회적기업 사례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3(6), 135-157.
 김숙연·김진구(2016). 사회적기업 특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30(4), 55-73.
 김용태·박재환(2013). 사회적기업 창업성과 영향요인 연구, *경영교육연구*, 28(2), 303-327.
 김정인(2014).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지원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분석: 자율경영공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181-212.
 김재홍·이재기(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분석-정부 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4), 1037-1063.
 김창범·이찬영(2015). 한국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8(4), 1715-1738.
 김학실(2016). 여성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동기와 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395-419.
 김희철(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7), 1797-1812.

선남아·박능후(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141-164.
 유금순(2013). 한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지*, 8(1), 121-145.
 이수창·정우열(2014).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21(2), 127-147.
 이용탁(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8(3), 129-150.
 윤경옥·손희정·오용락(2018).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및 정부 지원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무회계정보*, 19(2), 89-110.
 장영란·홍정화·차진화(2012).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0(2), 175-207.
 정재진(2014). CEO 특성, 경영통제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364-372.
 조영복·손진현·정기범·이나영(2018).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3(1), 89-104.
 홍효석·김예경(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회계정보저널*, 16(1), 1-29.
 Austin, J. E.(2000).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nonprofits and busines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9, 69-97.
 Chang, Y. R., Hong, J. H., & Cha, J. H.(2012).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0(2), 175-207.
 Cho, Y. B., Son, J. H., Jung, K. B., & Lee, N. Y.(2018).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General Entrepreneur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89-104.
 Cooney, K.(2011).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purpose business models in the united stat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 185-196.
 Dart, R.(2004). The Legitimacy of Social Enterprise,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4, 411-424.
 Dees, J. G.(1998). Enterprising non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76(1), 54-69.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available at www.dti.gov.uk/socialenterprise.
 Duccie, G., Stentella, C., & Vulterini, P.(2002). The Social Enterprise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13(3), 76-91.
 Foster, W., & Bradach, J.(2005). Should nonprofits seek 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83(2), 92-100.
 Hines, F.(2005). Viable Social Enterprise-An Evaluation of Business Support to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Journal*, 1(1), 13-28.
 Hong, H. S., & Kim, Y. K.(2016). A Study on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Journal Finance and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16(1), 1-29.

- Jung, J. J.(2014). The Effect of CEO'S Characteristics, Management Control on Organization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5), 364-372.
- Kim, S. Y., & Kim, S. G.(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Characteristics on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0(4), 55-73.
- Kang, M. S., & Yang, S. K.(2015). The Effe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JeJu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rust,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27(3), 17-35.
- Kim, H. C.(2015). A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7), 1797-1812.
- Kim, H. S.(2016).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siness Start-Up Motivations and Performance Cognition of Women Social Entrepreneur,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0(1), 395-419.
- Kim, J. I.(2014). A Study on the Performance Difference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and Support Type of Social Enterprise: Focusing on the Social Enterprise Notifying Management Information Autonomously, *Journal of Korean Welfare Administration*, 16(2), 181-212.
- Kim, M. H.(2008). A Study on a Case of Social Enterprise in the U.K. and Some Implications for Korea, *Social Welfare Policy*, 33(6), 135-157
- Kim, Y. T., & Park, J. H.(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 Business Review*, 28(2), 303-327.
- Kim, K. H., & Kang Y. S.(2014). Analysis of Region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141-151.
- Kim, K. C., & Suh, B. D.(2017).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 Characteristics and CEO's Management Capab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orporate Reputation,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4(2), 47-80.
- Kim, C. B., & Lee, C. Y.(2015). Efficiency Analysis on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8(4), 1715-1738.
- Kim, J. H., & Lee, J. K.(2012). An Analysis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Governmental Subsidi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4(4), 1037-1063.
- Lee, S. C., & Jeong, W. Y.(2014).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al Character on Soci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21(2), 127-147.
- Lee, Y. T.(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Social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8(3), 129-150.
- Mair, J., & Marti, I.(2006). Soci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 source of explanation, prediction, and deligh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36-44.
- Mancino, A., & Thomas, A.(2005). An Italian Pattern of Social Enterprise: The Social Cooperative,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5(3), 357-369.
- Sean, N. Y., & Park, N. H.(2011). The analysis of the factors effecting the socio-economic results of the social enterprise,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5(2), 141-164.
- Voss, G. B., & Voss, Z. G.(2000). Strategic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an artistic environment, *Journal of Marketing*, 64(1), 67-83.
- Weisbrod, B. A.(2004). The pitfalls of profits,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2(3), 40-47.
- Yu, G. S.(2013). Study on the Problem and Activation Measur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8(1), 121-145.
- Yun, K. O., Son, H. J., & Oh, O. R.(2018). A Study on Social Performanc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 Funds,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9(2), 89-110.

The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on the Financial and Social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in Korea

Hwang, Soo-Young *

Kim, Yong-Deok **

Koo, Inhyouk ***

Abstract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large scale unemployment and poverty have become serious, but there has been a surge in public and social job creation projects. However, with the limitations of low-wage and short-term jobs, the need for long-term, high quality jobs gradually began to garner attention. In recent years, social enterprises have grown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s has increased; more specifically, scholars are interested in the determinants of success and failure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academic fiel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 characteristics on financial and social performance.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analyzed social enterprises registered in the Korea Social Enterprise Agency.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was measured using the net income ratio, operating income ratio, and the return on asset. The so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wa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workers and the employment rate of vulnerable social group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nterprise included CEO characteristics (gender, age, experience in operating the social enterprise), firm size, and the elapsed time of authentica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for th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we found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firm size, organizational form, government subsidies, and capital adequacy ratio. And we found that the social performa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CEO age and credit debt dependence.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for the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we found that the total number of worke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CEO gender and CEO age, as well as firm size, government subsidies; whereas the total number of worke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certification type and industry dummy. Comparatively, the employment rate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CEO gender and certification type,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subsidies or firm size.

Keywords: Social Enterprises, Social Value, Job Creation, Financial and Social Performance

* First Author, Research Fellow,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x2004@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KOTEC), kyd4462@naver.com

*** Coauthor, Assistant Professor, Woosong University, kafkakoo@empas.com